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amsung Heavy looks to diversify in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삼성중공업이 9.5MW급 대형 해상풍력부유체 모델을 개발하고 노르웨이 선급 NDV로부터 기본설계인증을 획득함. 대형 해양플랜트 수행역량을 신재생 에너지분야로 확장함에 의의가 있음. (Tradewinds)

美 신규LNG프로젝트 바빠졌다

미국 신규 LNG프로젝트들이 사업인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음. 여러 국가정부들과 LNG바이어들이 2050년 탄소제로 목표달성을 위해 LNG 20년 장기 구매 계약 체결을 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임. 2030년까지 LNG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중국 상반기 수주량 206.8% 증가

중국 조선업계의 상반기 수주량이 3,824.5만DWT로 전년동기대비 +206.8% 증가함. 글로벌 51%에 해당됨. 건조 물량은 +19% 증가함. (선박뉴스)

Scrap prices smash through \$600 barrier as tonnage supply slows

공급속도가 느려지며 철스크랩 가격이 600달러/LDT 선을 돌파함. GMS는 고철공급이 줄어드는 여름 계절성의 영향을 제기함. 한편, 2008년 당시 최고 기록은 800달러/LDT임. (Tradewinds)

Petrobras invites subsea contractors to bid for Buzios-8 SURF system

Petrobras가 Buzios-8 입찰을 시작함. 최근 3개의 대형 SURF 입찰 중 마지막 주자임. Subsea7, TechnipFMC, Saipem 등이 초청되었으며, 제안서는 10월 14일까지임. (Upstream)

Seaspan flips boxship LNG bunker tank types to make vessels ammonia ready

Seaspan은 15,0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 주문 중 5척을 암모니아 ready 선박으로 변경함. 삼성중공업은 이제 5척을 12,000CBM, GTT의 Mark III 병커탱크로 건조할 것으로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3년 3분기임. (Tradewinds)